

# 비만치료제 시장 양강구도 심화 국내기업, '차세대 기전' 승부수

셀트리온 4중 작용 주사제 등 개발  
한미약품 만성·복합질환 연구 확장  
동아에스티 혈당 강하 효과 확인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양강 구도가 심화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포스트 비만치료제를 위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주사형 비만치료제 '렙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투여 옵션을 확대했다. 공개 방식(오픈 라벨)의 임상시험인 SURMOUNT-5에서 렙바운드를 투여한 성인 비만 환자들은 평균 50파운드(20.2%)의 체중 감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보 노디스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카그리세마를 개발하며 일라이 릴리와 맞대결하고 있다. 카그리세마는 카그리린 타이드 2.4mg과 세미글루타이드 2.4mg을 고정 용량으로 조합한 복합제다. 두 성분은 배고픔을 줄이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포스트 비만 치료제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4중 작용 주사제'와 '다중 작용 경구제'를 동시에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4중 작용 주사제 후보물질인 'CT-G



셀트리온 사무동 전경.

32'는 계열 내 최초 약물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 치료제의 근손실 부작용은 개선함과 동시에 식욕 억제, 체중 감량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임상시험승인계획(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중 작용 경구제는 주사제 대비 상대적으로 투약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환자 치료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GLP-1 수용체 작용제를 기반으로 약물을 설계해 계열 내 최초 약물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도비만이 아닌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로 전망된다.

동아에스티도 차세대 비만치료제로서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대한다. 동아에스티는 최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A-1726'에 대한 추가 임상 1상에서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 혈당 강하 및 간경직도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고도비만이 아닌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로 전망된다.

또한, 한미약품은 올해 들어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 'HM15275' 임상 2상에 진입했다. 36주간 장기 투여 시 비만, 고도비만 환자의 체중을 줄이고 제지방을 개선하는 차별화된 효능을 집중 검증한다.

특히 한미약품은 비만치료제 개발을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 연구 확장에 중점을 둔다. 에페글레타이드의 경우에도, 비만에 이어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으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도 차세대 비만치료제로서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대한다. 동아에스티는 최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DA-1726'에 대한 추가 임상 1상에서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 혈당 강하 및 간경직도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이찬희 “이재용 회장, 등기임원 역할 필요”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등기임원으로서 경영 진두지휘해야”



총회에서 이 회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삼성그룹 준법경영 감독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47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찬희 위원장(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준감위는 기존 준법 경영 강화와 함께 최근 탄생한 과반 노조 등 삼성전자의 새로운 노사 관계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 복귀와 관련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기임원으로서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회사 내부에는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을 것이고 경영 판단은 훨씬 더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

총회에 있고, 많은 위원들이 일정 부분 공감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는 하다”며 “다만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 사항이 있어서 결정해서 회사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서로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노조 측에서는 사측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간극이 무엇인지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며 조정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일자리 증가율 0.7%... 역대 최저 수준

데이터처 2025년 3분기 일자리 동향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율이 1% 미만인 데 그치는 등 고용시장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건설 부문에서 부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7% (13만9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역대 최저는 올해 1분기(1만5000개)와 2분기(11만1000개)였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율은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작년 1분기에는 1만5000개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수치는 전분기보다 소폭 나아졌으나 구조적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12만7000개 줄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1개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일자리는 전년대비 12만8000개 감소했는데, 수주 부진 및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보건·사회복지업은 12만9000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4만 개 줄어든 반면, 여성 일자리는 17만9000개 늘었다. 남성은 주로 건설업(-10만7000개)과 제조업(-6000개)의 부진에 영향을 받았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0만4000개)와 전문·과학·기술(1만7000개)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됐다. 여성 신규 채용 비중(28.4%)이 남성(25.3%)보다 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李 “다주택 유지하는 자유... 위험·책임 동반”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 재차 강조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손익은 각자 몫”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적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 집값 오를 것이라 기대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4에서 16포인트 하락한 108로, 지난해 12월(121)부터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지난 2022년 7월 16포인트가 떨어진 이후 이 같은 하락 폭은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적 정상화를 지지한다”

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 美, 글로벌 관세 10% 우선 시행

15% 연기... 백악관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당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우선 시행된다. 15% 관세 적용이 미뤄진

배경에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NBC뉴스,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0시 1분(현지 시간 관

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도 글로벌 관세가 일단 10%로 시작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 법적 패러다임 전환... ‘상법 개정안’ 첫 적용

» 1면 ‘주총 앞둔 재계...’서 계속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LG디스플레이는 19일 주총서 ‘소방시설 공사업’을 정관에 추가했다. 이는 외부 사업 진출보다는 대규모 제조 시설을 보유한 기업 특성상 사업장 관리의 전문성과 안전을 내재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다음달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되는 주총을 앞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펼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주총회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이사회 내 독립기구 구성요건 명확화 ▲이사 총실행의무 도입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 약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 등을 안건

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은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능력, 지배구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 설득과 기술 경쟁, 정책 변수 등 주총이 단순의결 절차를 넘어 경영 전략을 설명하는 무대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맞추면서 기업 경영에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총이 과거와 다른 점은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다. 지난해 공포된 ‘상법 개정안(이사 총실행의 의무 확대)’이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사들은 기업 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된다.

/양성운 기자